

‘광주권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속도 낸다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광산구 등 규제 풀어 산단 개발 2031년 RE100 미래형 산단 가동 일자리 1만개·2조원 생산유발효과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해소돼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의결, 확정됐다.

국가전략사업은 국가산단이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에 따라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된다.

미래차국가산단 예정부지는 102만평(338만4000㎡) 가운데 95.6%인 98만평(323만4000㎡)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특히 이 중 25만평(81만7000㎡)은



광주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위치와 현황도.

광주시 제공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린벨트 규제를 풀지 못하면 산단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걸림돌이 사라진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을 단순한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RE100 실현을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조 조성할 계획이다. 산단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발전 인프라 구축, 전력저장시스템(ESS)과 스마트그리드 적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미래차국가산단은 또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과 연계한 220만평 규모의 미래차 삼각벨트인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로 구축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래차국가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생산유발효과 약 1조 7384억원과 1만1829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지정에 따라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고시를 거쳐 2027년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보상이 완료된 부지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2031년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광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미래모빌리티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장성과 담양이 그린벨트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며 중장기 지역경제 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와 함께 그린벨트가 해제된 담양 제2일반산업단은 오는 2029년까지 봉산면 일원 75만5780㎡부지에 1911억원을 투자해 미래차 관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하기 좋은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산단 조성을 추진했으며, 이번 선정을 통해 2346억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담양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전력사업으로 지정된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는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 88만2343㎡일원에 오는 2031년까지 총 3695억원을 들여 나노 제2산단을 구축,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인근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와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지방 소멸 대응 및 지역 발전 견인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지정은 장성의 미래 경제지도를 바꿀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산업시장을 선도할 기업투자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유도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인구 유입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에 그린벨트 전면 해제 등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인 광주·전남 10만여명

투표소 광주 12곳·전남 26곳

다음 달 5일 치르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광주·전남지역 선거인과 투표소가 확정됐다.

광주 투표소는 12곳(선거인 수 5만 6103명)이고, 전남 투표소는 26곳(선거인 수 4만8465명)이다. 발송된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시간, 투표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를 관할하는 구위원회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대의원을

통해 간접선거를 하는 금고 선거인은 관할 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투표소 한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we-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 35곳, 전남 50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직·간선제로 선출한다.

후보등록 결과 광주는 48명, 전남은 66명이 지원해 각각 1.4대 1과 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4일 광주 북구선관위에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선거공보를 발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김흥탁의 Branding Class 3기 모집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0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5년 3월10일 개강-5월26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접수 기간]**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 [수강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의회/공공기관 등 홍보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Creative Solutionist 김흥탁
- Founder /2kg_Creative Solution Lab
- Chief Creative Officer / Paulus_Creative Agency
-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 Collective_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Adfest
- 전 Chief Content Officer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 전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전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 위원
- [빌게이츠재단+ Cannes Lions]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 Cannes Lions, One Show New York, London International Awards, New York Festival 등 Global Creative Festival 수상, 심사위원 및 Speaker 초빙

